

나주 복암리, 마한 역사 중심지 도약

정촌고분 등 복암리고분군 권역 '역사문화권 육성' 공모 선정 121억 들여 유적 정비·경관 조성

고대 마한(馬韓) 역사의 산실인 나주 복암리고분군 권역이 역사문화 환경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500만 나주관광사대를 견인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도약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나주 복암리고분군 권역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선도사업 선정을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나주 정촌고분, 잠애산성 등 비지정유적 및 주변부 통합정비 등 121억원 규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은 지난 2020년 제정되고 2021년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 정비를 통해 지역

발전은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화재청은 마한을 비롯해 고구려·백제·신라·가야·탐라·중원·예맥·후한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을 설정해 지난해 2월 선도사업을 전국 공모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한 유적·유물을 보유한 나주시는 8곳의 마한역사문화권을 도출해 전문가 자문·논의를 거쳐 다시면 복암리고분군 권역이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보고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문화재청의 심사, 현장조사 결과 선도사업 대상지로 나주를 비롯한 4개 지역(나주, 강릉, 함안, 해남)이 최종 선정됐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복암리마한권역은 고대 마한부터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고대 문화융합거점으로 비지정문화유산인 정촌고분과 잠애산성이 위치해있으며 다시면과 영산강 등 자연유산이 하나로 연결된 역사문화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복암리고분군 권역 선도사업은 '비지정유적 및 주변부 통합정비',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 '역사문화 향유공간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2014년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금동신발이 출토된 '정촌고분'과 삼국시대 축조된 '잠애산성'을 거점으로 탐방로 개설, 성곽 복원, 진입로 개설 등 통합 정비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진입로에 대한 영산강 연결 녹지 및 역사탐방로 개설, 복암리고분군 경관 정비 등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과 함께 다시면 마한유적 방문자센터, 마한 역사문화탐방체험존, 정촌고분 탐방 쉼터, 잠애산 전망대 등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 복암리고분군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은 오는 3월 중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심의를 거친 후 기본·실시계획수립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선정은 나주가 고대 마한 역사문화권을 대표하고 계승하는 도시로 상징성을 갖게 된 것이다"며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차질없는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나주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보건소 '마을 방문 이동 물리치료 버스'에서 성전면 상월마을 주민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강진군 '이동 물리치료 버스' 연말까지 운행

강진군이 올해 마을에 찾아가는 '이동 물리치료 버스'를 연말까지 운행한다.

올해 찾아가는 마을은 모두 180곳으로, 지난해 163곳보다 23곳 늘어났다.

강진군은 180개 마을 주민 2700명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을 살피고 물리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에 공중보건의와 물리치료사가 찾아가 의료 상담과 물리치료를 한다. 주민 호응이 높아 올해는 백·오지에 있는 마을까지 추가해 180곳으로 대상지를 확대했다.

이달 8일 성전면 상월마을을 시작으로 12월 병영면 상고마을을 끝으로 '마을 방문 이동 물리치료 버스'를 운행한다.

강진군 보건소는 앞으로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이동 물리치료 버스 안에서 일대일 맞춤형 방식으로 간섭과 전기치료와 적외선 열 치료기 등을 사용해 주민 건강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강진 163곳 마을 주민 1877명을 대상으로 이동 물리치료 버스를 운행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바이오식품산단 8개 기업 326억원 투자 유치

해우산업·다인음료 등과 협약 123명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이 8개 기업과 326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었다.

장흥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투자할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유)해우산업, (주)청산에식품, (주)정남진푸드, 푸른수산(주), (주)우성산업, (주)다인음료, (주)서광, (주)미풍 등이 참여했다.

각종 제조시설이 완공되면 12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장흥군은 내다보고 있다.

8개 기업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총 4만8155㎡(1만4500평)의 부지에 32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해우산업은 3306㎡(1000평) 부지에 23억원을 들여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할 특허받은 친환경 김 부표를 제조한다.

(주)청산에식품은 7409㎡(2200평)에 30억원의 사업비로 농남야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김밥김, 김스낵 공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주)정남진푸드는 4581㎡(1360평) 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한다.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홈플러스, CGV 납품을 목표로 김과 진미채를 혼합한 신제품 튀김 제조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푸른수산(주)은 3830㎡(1160평) 부지에 34억원을 투자해 새조막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꼬막 자숙살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을 세운다.



김성(왼쪽) 장흥군수가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투자할 기업인과 주력 제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주)우성산업은 3306㎡(1000평) 부지에 21억원을 들여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제, 금속 창호 등을 제조한다.

(주)다인음료는 2594㎡(780평) 부지에 22억원을 투입해 표고버섯 음료 등 비알코올 음료 제조 공장을 증설한다.

(주)서광은 6600㎡(2000평) 부지에 147억원을 투자해 가전제품 내 소모되는 웨이트 발란스추 제조 공장을 증설한다. 웨이트 발란스추는 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 관리기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으로 성능시험이 완료되면 LG전자와 45만개 생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미풍은 1만6529㎡(5000평) 부지에 25억원을 들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주원료로 하는 쌀 가공식품을 만든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지역산단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 고로쇠 채취 시작...3월까지 14만 l 수확

장성군은 최근 북하면 가인마을과 남정마을에서 본격적으로 고로쇠 수액을 수확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성 입암산-백암산 자락에서는 고로쇠나무 6000여 그루로부터 연간 14만 l 규모 수액을 수확하고 있다.

고로쇠 수액에는 칼슘과 미네랄,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골리수'라 불리기도 한다.

장성 고로쇠 수액은 일교차가 큰 청정 환경에서 채취해 맛과 향이 진하다. 목 넘김에서 느껴지는 청량감이 남다르다. 수액 채취를 기다리는 단골만 1000명 넘게 확보한 이유다.

채취 과정도 개선됐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물통을 들고 다니며 고로쇠 수액을 모았지만, 지금은 나무와 집수통을 고무관으로 연결해 신선도를 높였다. 포장해서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



장성군 북하면 주민이 고로쇠 수액을 수확하고 있다.

도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위생적이다.

수액 채취는 오는 3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1.5 l 6병 3만5000원, 12병 7만원이다. 12병을 사면 택배비는 무료다. 방문 구매 또는 온라인 거래 모두 가능하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야간당직 없애고 재난안전상황실 365일 상시운영

화순군이 야간당직 제도를 폐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그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은 주간에는 주민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재난안전업무 처리해 왔다.

하지만 전문성과 신속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직원들 역시 매일 한차례 서야 하는 야간당직에 피로감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난 15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문성을 가진 전담요원으로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늘고, 이태원참사 이후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선제적으로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